

TOURISM SCOPE

2018. Vol. **40**
ISSN 1739-5089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Lianyungang, China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he 8th TPO Forum

20-24 June 2018,
Ho Chi Minh City, Vietnam



Contents



04 Special Theme

러시아의 샌프란시스코,
블라디보스토크



10 Focus On

매력 넘치는 해양 도시
가오슝



16 Concept Travel

세계 최고의 쇼핑물



20 TPO People

중국 두장옌 시 부시장 이광휘
두장옌 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우뚝 서다

22 TPO News

TPO 뉴스

24 Festival Calendar

TPO 도시 회원 축제 캘린더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관광 분야 국제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PO에는 2018년 5월 기준으로 86개 도시 정부와 45개 민간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 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러시아의 샌프란시스코,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러시아어로 '동방을 지배하라'는 뜻의 블라디보스토크는 1992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외국인 입국이 금지된, 배일 속에 가려진 군사도시였다. 도시를 정복하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도시와 섬, 철길과 바닷길을 종횡무진했다.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럽의 고고한 정취를 마주할 때마다 감탄이 새어나왔다.

에디터 심민아 사진 오충근 취재협조 블라디보스토크시 www.vlc.ru,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www.aptpo.org





블라디보스토크가 낳은 할리우드 배우 윌 브리너 생가 Yul Brynner Mansion

1956년 영화 <십계>에서 모세의 상대역 람세스 역할을 맡은 윌 브리너(Yul Brynner). 연해주 국립미술관 앞 언덕엔 민머리에 미국적인 외모의 윌 브리너 동상이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로 우뚝 서 있다. 동상 뒤편엔 윌 브리너 생가가 든든히 지키고 있다. 노란색 외벽에 동판이 붙어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윌 브리너 얼굴과 함께 '1920년 7월 11일 윌 브리너가 태어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191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수한 벽돌과 대리석으로 지은 3층 저택으로, 현재 내부 입장이 금지되어 있다.



혁명 전사를 기념하다

중앙광장 Центральная площадь

블라디보스토크 중심가인 스베틀란스카야(Svetlanskaya) 거리에 있는 가장 큰 광장. 하얀색 고층 빌딩인 연해주 정부청사 옆에 위치해 있다. 구소련 시절, 소비에트 정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을 형상화한 3개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는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한 것. 동상 속 인물은 노동자와 선원, 군인들. 깃발과 총을 든 병사의 모습에서 결연함과 당당함이 느껴진다. 가운데 동상 주춧돌엔 '극동 지역에서 소비에트 정권을 위해 싸운 전사에게, 1917~1922'라고 적혀 있다. 혁명 전사를 기리는 역사적인 장소로 '혁명광장'이라고도 불린다. 지금도 5월 전승기념일마다 각종 이벤트가 열리며, 겨울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

해양공원 Спортивная набережная

아무르만(Amurский Залив)이 시원하게 펼쳐진 해양공원. 차가운 바닷바람이 온몸을 웅크리게 만들지만, 봄, 여름엔 페달보트를 타는 연인들로 북적인다. 공원 한가운데엔 '놀이공원(Карусель)'이 있다. 컬러풀한 대관람차가 시선을 끄는데, 안전장치 없이 사방이 뿔뿔해 있어 스릴 넘친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건, 바이킹도 마찬가지. 360도 회전하는 통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 400m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다 보면, 호랑이 조각상이 나타난다. 현재 연해주에 호랑이 300여 마리가 사는데, 오래 전 한반도에서 건너 온 것이라고.

주소 Batareynaya Ulitsa,
Vladivostok, Primorskiy
krai



걸으며 만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의 샌프란시스코'라 불리는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는 도보 여행자에게 최적화된 도시다. 지도 한 장 들고 걸어 다녀도 될 만큼 시내 중심가에 볼거리가 모여 있다.



극동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 토크렙스키 등대 Маяк Токаревский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반도 끝에 있는 하얀 등대. 1876년에 축조, 탐험가 구스타프 에게르셀드(Gustav Egersheld)의 이름을 따 '에게르셀드 등대'라고 불린다. '마약(Маяк)'은 러시아어로 '등대'를 뜻한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유선형의 자갈길이 생겼다. 사람들은 길을 따라 등대까지 걸어간다. 바닷바람이 어찌나 세차게 부는지 몸이 휘청거릴 정도. 하지만 이곳에 서면 루스키고와 블라디보스토크 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져 추위도 잊게 한다. 그 길 끝에 송전탑이 서 있는데, 루스키섬까지 전력을 공급한다. 다시 송전탑에서 등대까지는 좁은 바닷길을 건너야 한다. 썰물 때 바닷물이 열려 등대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아야 가능하다.



황제를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 개선문 Nikolai's Triumphal Arch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Nikolai) 2세는 왕자 시절 시베리아 횡단 열차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 보통 개선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개선장군을 위해 세우지만, 이 개선문은 황제 방문을 기념해 세운 것. 1890년 10월 니콜라이 2세는 황위 계승 전, 견문을 넓히기 위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인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1891년 5월에 여행한 마지막 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였다. 니콜라이 2세는 배에서 내려 아치형의 개선문을 지나 도시로 입성했다. 개선문 정면엔 니콜라이 2세의 얼굴과 함께 방문 날짜인 1891년 5월 11일이 적혀 있고, 그 아래 니콜라이 황제의 이니셜 N자가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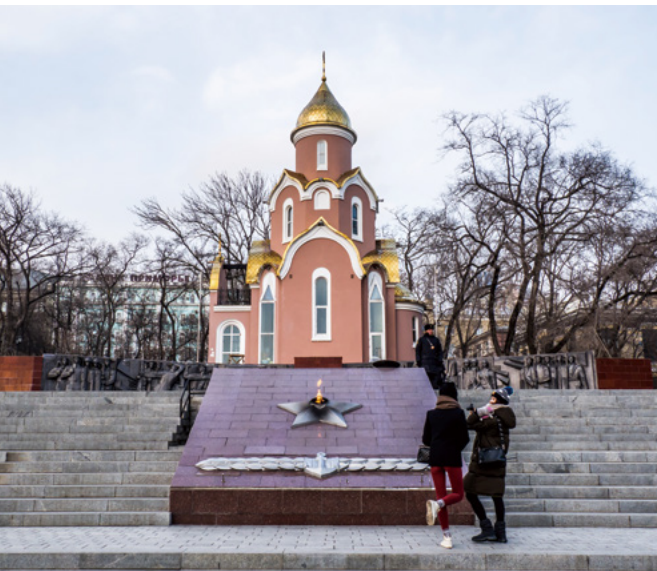
주소 Ullitsa Petra Velikogo, 6, Vladivostok, Primorskiy kray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조망하다 독수리 전망대 Орлёное гнезд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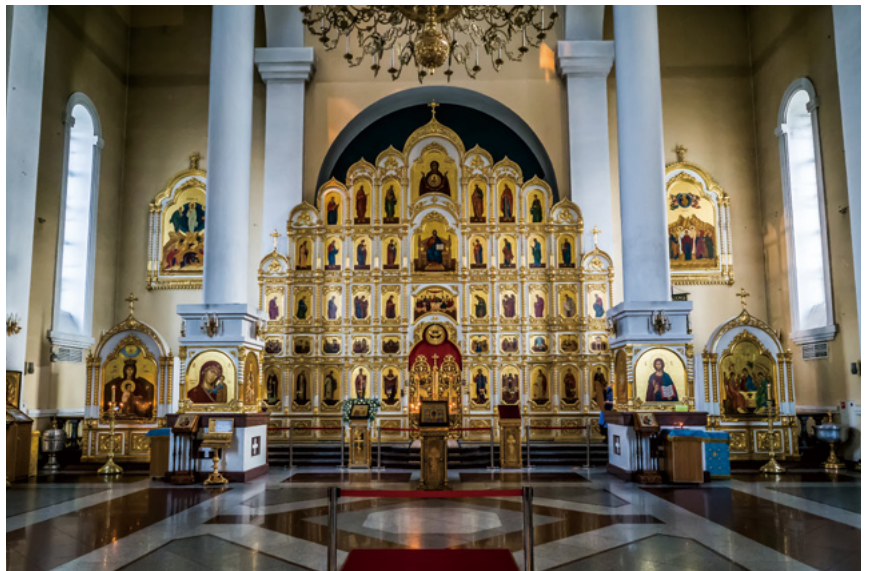
러시아어로 '독수리 둥지'라는 뜻의 '오들리노예 그네즈도(Orlinoe Gnezdo Mt.)'엔 전망대가 있다. 바로 해발 214m의 '독수리 전망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금각교 너머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시원하게 펼쳐지는데, 특히 저물녘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환상적이다. 전망대 뒤편으로는 러시아 어의 모체가 된 키릴 문자를 만든 전도사 키릴로스(Kyrillos)와 그의 형 메토디오스(Methodios) 동상이 서 있다. 전망대를 가려면, 빨간색 케이블카 '푸니쿨로르(Funikuler)'를 타고 오르는 것이 좋다. 1959년 건설, 1962년부터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yov)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극동의 샌프란시스코를 꿈꾸며 케이블카를 지은 것. 블라디보스토크의 푸니쿨로르는 하행과 상행 케이블카가 서로 교차해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바다 전망을 누리기엔 2분이 짧게만 느껴진다. 케이블카 요금은 편도 12루블.

주소 Sukhanova Street, Vladivostok, Primorskiy kray



전쟁 전사자를 기리다 영원의 불꽃 Храм Часовня Андрея Первозванного

잠수함 박물관 옆엔 러시아 강추위에도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꽃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으로, 해군 서너 명이 서서 지키고 있다. 벽면엔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 가슴이 먹먹하다. 그 뒤로 성 안드레아 성당이 불꽃을 지키고 있다. 예수의 제자이자 러시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안드레아를 모신 성당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며 자리해 있다. 선원들의 수호성인인 안드레아를 모신 성당답게 어부나 해군의 아내들이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기도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118년 전통의 그리스 정교회 포크롭스키 정교회 사원 Покровский кафедральный собор

블라디보스토크를 대표하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 1900년 5월 처음 짓기 시작해 1902년 9월 완공됐다. 지붕엔 양파같이 생긴 5개의 쿠플(Kupol)이 햇살에 반짝이는데, 타오르는 '촛불'을 형상화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촛불은 나 자신을 불태워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 색색의 쿠플은 이국적인 비주얼을 뽐내는 것은 물론 눈이 쌓이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예배당 내부는 금빛의 이콘(성화)과 프레스코화로 가득한데, 니콜라이 2세 가족을 그린 이콘이 특히 볼만하다. 이콘 앞에 서서 초를 봉헌하고 기도를 드리는 러시아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배당 안쪽 벽면엔 이콘 수십 개가 연결되어 있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예수와 성모마리아, 12사도와 성인들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섬세하게 표현돼 마치 예술품을 보는 듯하다.

주소 Okeanskiy Prospekt, 44, Vladivostok, Primorskiy kray 전화 +7-423-243-59-25 홈페이지 www.pokrovadv.ru

러시안 레스토랑

킹크랩 맛집으로 소문난 아시안 레스토랑, 육즙 가득한 한칼리를 선보이는 조지아 음식점 등 현지인이 추천하는 레스토랑 5곳을 소개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 스튜디오 카페 Studio Cafe

러시아에서 카페의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 흔히 말하는 커피 전문점을 '카페이냐'라고 하고, '카페'는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의미한다. '스튜디오 카페'에선 러시아 전통 음식부터 이탈리아 피자 파스타, 각종 브런치 등을 선보인다. 따끈한 전통 수프 보르시는 흑빵 안에 담겨 나오는데, 뚜껑을 닫으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 절인 청어 필렛은 한 입 크기로 썰어 빵 위에 올려 먹는데 생양파와 잘 어울린다. 이곳에서 파는 메뉴는 양이 많지 않은 편. 두 사람이 4개 메뉴를 주문해야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맥주와 함께 즐길 피자 종류도 10가지. 치즈, 해산물, 베이컨 & 꿀, 페퍼로니, 닭고기 & 버섯, 하와이언 등 토핑이 다양하다. 24시간 운영되니 어느 때든 찾아가길 수 있다.

주소 Svetlanskaya St, 18a, Vladivostok, Primorskiy kray 전화 +7-423-255-22-22 가격 보르시 340루블, 오징어 먹물 파스타 540루블 홈페이지 <http://cafe-studio.ru>



이국적인 조지아 음식점 수프라 Cynpa

해양공원 입구에 있는 조지아 음식점. 오픈 키친에선 고기 굽는 연기가 가득한데, 노릇하게 구운 양고기 사슬릭이 특히 맛있다. 양고기가 부담스럽다면, 소고기·돼지고기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테이블마다 복주머니처럼 생긴 조지아 만두 한칼리를 주문하는데, 한국식 만두와 모양이 다르지만 맛은 상당히 비슷하다. 사오롱바오처럼 뜨거운 육즙을 가득 머금어 입천장이 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수프라는 예약을 받지 않아 웨이팅이 길다.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달래줄 와인 과 과일이 무한 제공된다. 러시아인들이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즐겨 찾는 격식 있는 레스토랑으로, 주말에 오면 특별한 러시아식 생일 이벤트를 볼 수 있다.

주소 Ulitsa Admirala Fokina, 16, Vladivostok, Primorskiy kray 전화 +7-423-227-77-22 운영시간 12:00-24:00 홈페이지 www.suprav.ru



트렌디한 수제 버거 바 댁 바 Dab Bar

블라디보스토크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버거 가게. 화려한 바에서 버거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까지 술술 마시게 된다. 가장 인기 있는 버거는 '그랜드캐니언(Grand Canyon)'. 이탈리아 오픈에서 구운 소고기 패티에 체다 치즈, 베이컨, 토마토, 양상추 등을 토핑,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한 버거다. 웨지감자와 양배추 샐러드 코울슬로가 곁들여 나온다. 소고기 패티 2장이 들어간 '빅 건(Big Gun)'은 통 큰 남성들에게 제격. 베티테리언이라면, 연어 스테이크에 타르타르소스를 곁들인 '모비딕(Moby-Dick) 버거'와 '채소 버거'를 추천한다. 댁 버거는 기호에 따라 계란프라이, 할라피뇨를 추가해 즐길 수 있다.

주소 Ulitsa Aleutskaya, 21, Vladivostok, Primorskiy kray

전화 +7-423-262-01-70

운영시간 월~목요일 09:00-02:00,

금요일 09:00-08:00, 토요일

10:00-08:00, 일요일 10:00-02:00

가격 그랜드캐니언 380루블,

럼버잭 400루블, 모비딕

390루블, 빅건 550루블

홈페이지 <http://dabbar.ru>



본토에서 즐기는 킹크랩 주마 Zuma

16세기 말레이시아 유명 요리사의 이름을 따 지은 주마(Zuma)는 태국,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 다양한 아시아 요리를 선보인다. 동양적인 색채가 짙은 젠 스타일 인테리어와 생동감 넘치는 오픈 키친을 갖추고 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오호츠크해 동쪽 캄차카반도에서 잡은 킹크랩 요리. 손님이 주문하면 생물 킹크랩을 보여주는데,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받게 된다. 잘 익은 킹크랩은 살이 통통하게 올라 다리 서너 개만 먹어도 엄청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코르사코프섬에서 잡은 가리비회도 별미. 회가 어쩌나 신선한 바다를 통째 집어삼킨 느낌이다. 간장에 고추냉이를 얹어 먹으면 싱싱한 가리비회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외국인에게 10% 서비스 요금이 부가된다.

주소 Fontannaya Ulitsa, 2, Vladivostok, Primorskiy kray 전화 +7-423-222-26-66

운영시간 토~수요일 11:00-01:00, 목·금요일 11:00-03:00 가격 킹크랩 1kg 2000루블,

연해주 가리비 1개당 290루블 홈페이지 www.zumav.ru

아르바트 거리에서 디저트 타임

아기자기한 보행자 도로인 아르바트 거리는 블라디보스토크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분위기 있는 카페에 앉아 갓 구운 빵과 함께 차를 훌쩍이며 한껏 여유를 부려보자.



클래식한 영국식 카페 파이브 어클락 5 o'clock

2007년에 문을 연 베이커리 카페. 자리에 앉자마자 영등이가 푹 꺼지는 폭신한 체크 패브릭 소파와 정겨운 잔꽃 문양의 커튼, 여행 책이 꽂힌 원목 책장 등 아늑한 카페 분위기에 마음이 녹아내린다. 벽면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영국식 전통 티 하우스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가게 이름 역시 영국 스타일. 오후 5시에 차를 마시는 영국 티 문화에서 따온 것. 창가엔 파이브 어클락의 시그니처 빵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놓여 있는데, 절로 손이 간다. 조각 케이크와 스콘, 머핀이 이곳의 대표 메뉴. 특히 당근 케이크와 레드벨벳 케이크가 유명하다. 케이크는 투박하면서 먹음직스러운 비주얼. 영국산 밀크티에 조각 케이크를 곁들이면 시베리아 감추워도 두렵지 않다. 술술 배고파지는 오후 5시에 이곳을 방문해보자. 영국식 감성으로 몸과 마음을 짹짹 채워줄 것이다.

주소 Ulitsa Admirala Fokina, 6, Vladivostok, Primorskiy kray 전화 +7-423-294-55-31
운영시간 08:00~21:00 홈페이지 www.five-o'clock.ru



블라디보스토크의 스타벅스 앨리스 커피 Aliis Coffee

'해적 커피' '로딩 커피'라고 불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핫한 커피숍. 주인이 몇 차례 바뀌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아름다운 여인 얼굴이 이곳의 트레이드마크. 컵 중앙에 여자 캐릭터가 프린팅되어 있는데, 스타벅스의 심벌 마크를 떠올리게 한다. 인테리어는 눈 돌아갈 정도로 감각적. 팝 아트를 연상케 하는 컬러풀한 초상화 액자가 곳곳에 걸려 있고, 키 낮은 가족 소파가 편안함을 준다. 좌석이 많지 않아 옆 테이블에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쉴 수 있다. 인기는 스타벅스 못지않다. 실 새 없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느라 여념이 없고, SNS에 올라온 엄청난 게시를 수가 이곳의 인기를 말해준다. 400ml 컵에 담겨 나오는 아메리카노가 단돈 55루블(1100원)이라니 저렴한 데 더 매력적. 끝 맛에 산미가 느껴지고 라이트한 바디감의 원두를 사용, 연한 커피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컵 홀더가 없어 테이크아웃 시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메뉴에도 없다.



주소 Ulitsa Admirala Fokina, 5-7, Vladivostok, Primorskiy kray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20:00, 주말 11:00~20:00 가격 아메리카노 55루블, 티라미수 89루블 홈페이지 aliiscoffee.com



달달한 팬케이크

우흐트블린 Ух Ты, Блин

러시아어로 '블린(Блин)'은 팬케이크를 뜻하는데, '우흐트, 블린'은 '오! 너, 팬케이크'를 의미한다. 귀여운 이름 이면에 '이런 전장'이라는 중의적 의미도 품고 있다. 아르바트 거리에 게스트하우스가 많은데, 대부분 조식이 제공되지 않아 이곳에서 브런치를 즐긴다. 1000원 대의 저렴한 팬케이크를 팔아 여행자 사이에서 알음알음 입소문이 났다. 얇은 팬케이크 반죽 위에 초콜릿, 견과류, 꿀, 햄, 계란, 연어 등 다양한 재료를 토핑하는데, 그 맛이 확 달라진다. 수십 가지 팬케이크 중에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된다면, 꿀 팬케이크와 햄&치즈 팬케이크가 무난하다.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우흐트블린의 팬케이크는 반죽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씹기 무섭게 꿀떡 넘어간다.

주소 Ulitsa Admirala Fokina 9, Vladivostok, Primorskiy kray 전화 +7-423-200-32-62 운영시간 10:00~21:00 가격 꿀 팬케이크 90루블, 햄, 치즈, 버섯 팬케이크 230루블



반나절 루스키섬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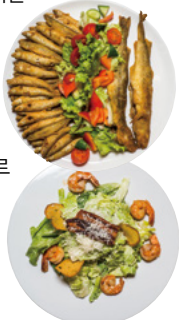
블라디보스토크 남부의 거대한 섬. 구소련 시절까지
외세 침략을 대비해 해군이 주둔, 한동안 폐쇄됐다.
2012년 APEC 개최로 일반에 공개된 루스키섬의
속살은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다.



루스키섬 최고 맛집 노빅 컨트리 클럽 Novik Country Club

숲 속 통나무집 같은 곳에서 숙박은 물론 식사, 액티비티까지 즐길 수 있다. 야외 테라스와 이어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닷가에 발이 닿는다. 바다 위로 나무 데크가 길게 뻗어 있는데, 낭만 가득한 포토 포인트가 되어준다. 강추위에 바닷물이 꿈꿈 얼었고, 빙판 위에서 빙어를 낚는 강태공을 쉽게 볼 수 있다. 빙어 튀김, 코리시카는 이곳의 인기 메뉴. 부서질 듯 부드러운 식감의 광어 찜 요리 '뽕투스도' 먹어볼 만하다. 하얀 생선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데, 별다른 양념 없이 담백하게 즐기기가 좋다. 날이 좋으면 테라스에 앉아 자연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겨보자.

전화 +7-423-200-35-22 홈페이지 www.mynovic.ru



루스키섬 트레킹 바틀리나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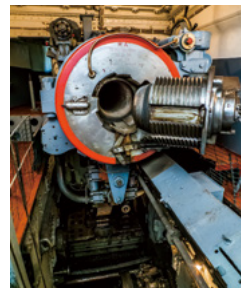
바다 위로 휘어지듯 뻗은 '바틀리나곶'은 바다를 조망하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멀리서 보면 북한 지형과 비슷한데, 실제 바닷길을 따라 내려가면 북한 땅에 닿는다고. 바틀리나곶 해안가엔 성게가 발에 차일 듯 많고, 여름엔 패들보드 타는 러시아 청소년들이 많다. 오른쪽엔 바틀리나곶과 쌍둥이처럼 닮은 3시간 코스의 '토비 지나곶'이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자.



눈앞에 대포가 보로실로프 대포 Voroshilov Battery

블라디보스토크에 100여 개의 요새가 있지만,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해안포가 숨은 듯 자리해 완벽한 요새 조건을 갖췄다. 러일전쟁에 패배한 러시아가 일본의 침략을 대비해 1934년에 세운 것. 3개 포가 달린 거대한 대포 2대가 바다를 향해 서 있다. 포 지름은 305mm, 포탄 무게는 450kg, 최대 발사 거리도 38km에 달한다. 지하 26m 아래 조성된 대포진지는 병사 70명이 생활하던 지하 3층 구조로, 1층과 지하 일부를 박물관으로 개조했다. 내무실과 포탄 보관 창고 등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수풀에 가려진 완벽한 벙커 덕에 아직까지 적군에게 노출된 적이 없다.

전화 +7-423-222-51-70
운영시간
09:00~17:00,
월~화요일 휴무
입장료 100루블



러시아 캠퍼스의 낭만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가장 큰 종합학교.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루스키섬에 대학이 들어서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12년 9월 APEC정상회담(A~C동)이 개최된 역사적인 장소로, 학교 건물치고는 너무나 세련되고 첨단화된 모습이다. 캠퍼스가 워낙 넓어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 5분에 1대씩 운행돼 일반인도 산책할 겸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건물 내 입장은 불가능하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봄 여름에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다.

주소 10 Ajax Bay, Russky Island Vladivostok 전화 +7-800-555-08-08 홈페이지 www.dvfu.ru



매력 넘치는 해양 도시 가오슝高雄

타이완의 따스한 남부 도시 가오슝. 연평균 26°C를 유지하는 따뜻한 기온과 1년 내내 햇빛이 비치는 천혜의 기후조건으로 유명하다. 시내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비롯해 고속철도, 기차, 지하철, U-bike(공용자전거) 등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시내가 위치해 있어 여행에 최적화된 도시. '론니 플래닛(Lonely Planet)'이 뽑은 2018 관광도시 가오슝의 매력을 만나보자.

에디터 고아라 사진 <AB-ROAD> 자료실



가오슝 여행 정보

위치 타이완 남서부 면적 2,946km² 인구 2,769,072(2010년) 기후 바다와 인접해 고온다습하다. 겨울은 한국의 늦가을과 비슷해 쌀쌀하지만 혹독한 편은 아니다. 연평균기온 18.6~28.7°C며, 습도는 60~81%다. 개요 남부 타이완 최대 도시로 성(省)의 직할시이다. 좁고 긴 석호(潟湖) 어귀에 발달한 무역항. 항구의 수심이 얕으나, 항만시설의 정비로 1만t급 선박의 접안(接岸)이 가능하다. 농산물·원료 및 제품 등의 수출항, 소비재 수입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힘차게 날아오르는 아시아 신 만구(灣區)

천추(陳菊) 가오슝 시장은 '아시아 신 만구(Asia's new bay area)'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과거 공업도시였던 가오슝을 미래 남부지역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것. 가오슝 순환 경전철(環狀轉動)을 기반으로, 항구 레저휴양지와 경제무역지구로 변신한 가오슝의 새 얼굴이 발길을 끌고 있다.



MICE 산업의 중심 가오슝 컨벤션 센터 高雄展覽館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항만에 인접한 컨벤션 센터. 전시와 국제회의, 연회,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오슝의 대표 관광 명소다. 총 5만 2000㎡이 넘는 실내와 옥외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다. 20~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한 번에 최대 4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2014년 개관 이후, 타이완 남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관광 박람회와 국제 보트 쇼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오슝 최고 랜드 마크로 자리 잡았다. 가오슝의 다기능 경제 무역권 내에 위치하고 있다.

주소 No. 39, Chenggong 2nd Road, Qianzhen District, Kaohsiung City(경전철 C8 역) 전화 +886-7-213-1188 운영시간 10:00~18:00 홈페이지 www.keccc.com.tw



타이완 최고의 기능성 건물

가오슝 시립 도서관 총관 高雄市立圖書館

가오슝 시민들의 마음의 양식과 평온한 휴식을 책임지고 있는 힐링 공간. 2만 ㎡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가오슝 시립 도서관 총관이 특별한 것은 실버등급 그린 빌딩 인증서를 획득한 현조식 그린 빌딩이라는 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현조식 경관 정원이 있으며, 도서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계됐다. 이 밖에도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된 테라스가 있는 광장과 타이완 최초의 통합 시스템 건축 등으로 타이완 최고의 기능성 건축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도서관 내에는 시민들이 책을 구매하여 비치하기도 했는데, 관내에 설치한 감사의 나무는 바로 이런 시민들의 참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담은 것. 타이완 최초의 국제 그림책 도서관 및 어린이 극장을 갖추고 있다. 관내 1층은 천장을 높이 만들어 반 개방적인 공간이며, 제일 위층에는 공중 화원이 마련되어 가오슝만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주소 No. 61號, Xinguan Road, Qianzhen District, Kaohsiung City
전화 +886-7-536-0238 운영시간 평일 10:00~22:00, 주말 10:00~21:30,
월요일 휴관 홈페이지 www.ksml.edu.t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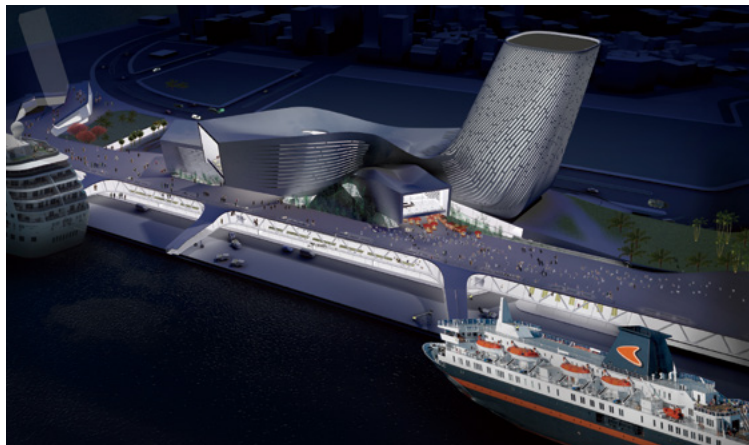


세계로 뻗어가는 가오승 가오승 항구&크루즈 센터 KAOHSIUNG PORT AND CRUISE SERVICE CENTER

22.5만 t의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여객터미널, 세계적인 건축 회사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HMC(HMC Architects)와 손을 잡고 새롭게 태어났다. 가오승 시의 상징적인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항구 풍경이 내부에서 펼쳐지도록 고안한 것이 특징, 세계와 가오승을, 시민과 방문객들을 연결하기 위함이다. 약 2871m² 면적에 8층 높이로 지어진 터미널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을 갖춘과 동시에 시민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든 것.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는 유람선 7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선착장과 항구 관리국 사무소로 구성돼 있다. 실내 공간은 여행객이나 출퇴근하는 시민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해양 및 도시 경치에 흠뻑 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디자인되었다. 매끄러운 곡선이 눈에 띄는 외관은 이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한 것. 대부분 유리로 되어있는데,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 기능성 소재다.

타이완의 미래를 그리다 해양문화 및 대중음악센터 KAOHSIUNG MARITIME CULTURAL & POPULAR MUSIC CENTER

미래적인 독특한 외관으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곳. 1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극장과 3500석 규모의 실내 극장, 공연·전시 홀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약 500여 회의 문화 예술 활동이 열린다. 주로 타이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식도락과 음악을 반영하기 때문에 타이완 라이프와 문화의 중심이라 평가받고 있다. 해양 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타이완 식 야시장에 어울리게 재구성되어 들어선 것. 야시장에서 먹거리를 구입한 사람들은 지인들과 야외에서 공연을 보며 평화롭게 식도락을 즐길 수 있다. 해양문화 및 대중음악센터에서는 프로 음악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의 연주와 게릴라 콘서트도 허용되는 것이 특징. 폭넓은 타이완의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연안을 마주하고 있는 대강당에서는 주로 대중음악 공연을 만날 수 있는데, 인근 공원으로



로 곧장 연결되어 관람객들이 밀집되지 않고 적절히 분산되도록 균형을 잡아준다. 한쪽에서는 간편한 타이완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가판대들이 설치된 야시장과 레스토랑, 상점, 음악가들의 작업실, 휴식처, 그리고 비정기 콘서트를 위한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다. 소규모 공연장은 직선으로 배열돼 있는데, 각각 독특한 건축적 요소로 변형을 주었다.



가오승 여행의 든든한 두 발 순환 경전철 메트로 Ring Light Rail

타이완의 첫 저탄소 경전철이 연안 구간을 운행하면서 4대 공공시설을 관통한다. 컨벤션 센터와 시립 도서관 총관, 해양문화 및 대중음악센터, 가오승 항구와 크루즈 센터 등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교통수단. 열차의 플랫폼에는 카드 단말기가 구비되어 있는데, 전자티켓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발권기에서 종이 티켓(편도 노선)을 구매하면 된다. 현재 C1 리자이네이 역에서부터 C14 허마싱 역까지 운행 중이며 총 C37 역까지 오픈할 계획이다.

운영시간 07:00~22:00 가격 전 구간 구간별 요금제 운영. 현장 발권 30위안

놓치지 말아야 할 가오슝 핫 스팟



대만 최대 사찰 불광산 佛光山

산 전체가 하나의 큰 사찰인 곳. 불타 기념관에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된다. 대웅전을 비롯해 불교대학, 숙박 및 편의시설을 겸비한 조산회관과 연못 등 볼거리가 많으니 최소 1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오르는 것이 좋다. 이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는 대웅전과 대불성. 총 1만 4800존 불상 가운데 자리한 석가모니, 아미타부처, 약사여래부처 삼존상과 72층 높이의 두보탑 등이 놓여 있는 대웅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찰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규모가 대단하다. 사찰 안에 있는 언덕을 오르면 길목부터 뻗어 자리한 아미타부처상을 만나게 된다. 총 480존의 부처상이 40m 높이의 대불성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곳에서는 시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대불성에서 지장전을 따라 내려오며 관음상에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을 듯. 동전을 던져 관음상 앞에 놓인 종을 치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설이 있어, 동전을 갖고 줄을 서 있는 관광객이 많다. 불광산 내부에는 언덕과 계단이 많으니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주소 高雄市大樹區興田里興田路153號 전화번호 866-7-656-1921

홈페이지 www.fgs.org.tw



타이완 제2의 도시라 불리는 가오슝. 타이완 불교문화의 정수를 할 수 있는 불타 기념관과 불광산, 가오슝 시민들의 쉼터인 연지담 풍경을 지나 도시를 가로지르는 아이허 강에서 야경을 즐기면 가오슝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가오슝 시민들의 휴식처 연지담(렌츠탄) 풍경구 蓮池潭風景區

가오슝 도심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 원래는 농업용 저수지였는데, 현재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심 속 테마파크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에 수많은 사당이 있고, 북쪽에는 공자묘가, 남쪽에는 중국 궁전식 누각인 용호탑과 춘추각 등이 있다. 도교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용호탑 왼쪽에는 용의 머리가, 오른쪽에는 호랑이의 머리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용의 머리로 들어가 호랑이의 입으로 나오면 '악운이 행운으로 변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용호탑 앞에 구불구불하게 꺾여 있는 구곡교에 들어서면 귀신이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이 있다. 8층 규모의 목탑 정상에 오르면, 연지담 풍경구 일대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가오슝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포츠 중 하나인 렌츠탄 케이블 웨이크보드를 즐길 수 있다.

주소 高雄市左營區翠華路 용호탑 관람시간 월~일요일 08:00~17:00

압도적 규모를 자랑하는 불교문화 박물관 불타 기념관 佛光山佛陀紀念館

타이완 최대의 보살도장으로 불교의 성지다. 타이완 정통 불교의 시작이자 본거지로 불린다. 2012에 설립, 본관은 인도 양식으로, 팔정도 탑은 중국 전통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중 120m 높이의 황금 불상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상으로 규모가 압도적이다. 각 탑 안에는 불교 관련 유물과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본관에는 불광산의 역사와 부처님의 일생을 소개한 상설관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본관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것으로 유명인데, 예약을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과 물려드는 관광객을 피하려면 아침 일찍 서두르는 편이 좋다. 불타 기념관 입구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한국어로 된 지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관람하기 전에 꼭 챙겨두자.

주소 84049高雄市大樹區統嶺里統嶺路1號

관람시간 평일 09:00~19:00, 주말

09:00~20:00 전화 866-7656-3033

홈페이지 www.fgsbmc.org.tw





가오승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85 스카이 타워 東帝士85國際廣場

가오승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래층은 백화점이나 상가로, 37층에서 85층까지는 호텔로 이용하고 있다. 타워의 전망대는 85층이 아닌 74층이다. 캐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엘리베이터 천장이 까맣게 변하며 별자리 모양으로 빛나기를 43초. 300m 높이의 75층에 도착한다. 한 층만 내려가면, 가오승의 사진과 그림, 조각품들을 판매하는 기념품 숍과 함께 전망대가 펼쳐진다.

주소 高雄市前金區自強三路1號74樓 전화 886-7-5668000 입장료 성인 180TWD 홈페이지 www.85skytower.com



낭만의 상징 아이허강 愛河

가오승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 밤이 되면 강변 근처 카페와 주점들이 내뿜는 빛으로 더욱 빛난다. '타이완 85 스카이 타워'를 비롯해 시립 역사박물관, 지방법원 등 시내 주요 시설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그중 유독 높게 솟은 동상 하나가 눈에 띄는데, 머리는 웅이고 몸은 물고기로 되어 있다. 높이 25m, 무게 30t의 거대한 규모로 아이 허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앰배서더 호텔 앞에 위치한 매표소에서 표를 사면 유람선을 탈 수 있다. 무더위를 식히며 가오승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운행 시간은 15~20분.

주소 高雄市前金區河東路 운영시간 월~금요일 15:00~22:00, 주말 및 공휴일 09:00~22:00
가격 어른 120TWD, 어린이 및 노인자 60TWD



부두에 피어난 예술 보얼예술특구 駁二藝術特區

버려진 부두 창고를 개조해 만든 예술 공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두는 이제 그 쓸모를 다했지만, 젊은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곳을 예술 거리로 조성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오로지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오늘의 보얼예술특구가 탄생했다. 일부 개조하긴 했지만, 대부분 기존의 공간을 재활용해 사용하고 있다. 옛



공간이 남긴 독특한 흔적들이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인 셈. 전시 공간과 기념품 숍 외에도 베이커리와 카페도 자리하고 있다.

주소 高雄市政府文化局版權所有
운영시간 전시 공간에 따라 상이



당일치기 가오슝 근교 여행



아쿠아리움에서 즐기는 휴식

국립해양생물박물관 國立海洋生物博物館

타이완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물의 실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해양 종합 생태 박물관. 타이완 내의 다양한 생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생물을 볼 수 있는 타이완 수역관을 포함해 수심 84m의 해저 수중 터널과 산호초로 가득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산호 왕국관, 고대 해양 생물부터 길이 10m에 달하는 해초와 전 세계 펭귄 17종 중 4종을 보유한 세계 수역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둘러보려면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된다. 수유실과 해산물 레스토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해안가에서 각종 분식류와 아이스크림 등도 판매하고 있어 중간중간 쉬면서 요기를 할 수 있다. 실제 크기의 고래를 재현해 놓은 고래 수변 광장과 태평양 수변 광장에서는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주소 屏東縣車城鄉後灣村後灣路2號 전화 886-8-8825678

운영시간 월~일요일 09:00~18:00(4~10월), 09:00~17:00(11~3월), 단 여름방학(7/1~8/31일)에 한 해 08:00~17:00 입장료 성인 450TWD, 학생 250TWD 홈페이지 www.nmmba.gov.tw

도심 곳곳을 누비며 가오슝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근교로 발길을 돌려보자.

시내와 항만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가오슝 근교의 명소들도 주목받고 있다. 하루만 시간을 내면 비슷한 듯 전혀 다른 근교 도시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의 악장을 넘기다 강산즈옌 崗山之巔

억대의 건설비용이 투입된 강산즈옌이 바로 그것. 강산구(岡山區)와 옌차오구(燕巢區)가 맞닿은 사오강산(小崗山)에 위치한 강산즈옌 관광단지의 면적은 무려 1.8ha에 달한다. 강산즈옌에 오르면, 아궁덴(阿公店) 댐과 강산구, 옌차오구 전경이 펼쳐지며, 멀리는 가오슝 항, 툰텍스 스카이 타워(Tuntex 85 Sky Tower)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2017년 춘절연휴 정식개장 후 한 달 만에 15만 명을 기록하면서, 명실상부 가오슝 최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강산즈옌의 하이라이트는 전체길이 88m에 달하는 스카이웨이. 음악을 모티브로 디자인됐으며, 철근구조의 현수교 형태로 설계되었다. 41m 높이의 주탑 교는 바이올린을 본 떠 지었는데, 케이블 와이어가 마치 바이올린 줄처럼 늘어져있어 환상의 선율을 선사하는 듯하다. 스카이웨이 이를 걷다보면 시원한 바람이 아름다운 연주곡이 되어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나도 모르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주소 820 Gangshan, Kaohsiung City 전화 886-7-628-2100 운영시간 평일 09:00~17:00, 주말 09:00~18:00, 월요일 휴무
가격 어른 80위안, 어린이 40위안 홈페이지 khskywalkpark.com



라이프 오브 파이의 백사장 백사완(바이사완) 해변 白砂灣

하얀 모래사장이라는 뜻을 가진 해변. 이안 감독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등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은 해풍으로 인해 백사장을 더는 볼 수 없지만 다른 해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곱고 반짝이는 모래가 인상적이다. 알록달록한 파라솔들을 보고 있으면 여름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타이완 남부를 여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으로, 현지인들에게도 휴가지로 사랑받고 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맞출 수 있다. 해변 초입에 국수가게나 작은 슈퍼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레스토랑이 없으니 먹을거리를 미리 챙겨 오는 것이 좋다.

주소 Baisha Rd, Hengchun Township, Pingtung County, Taiwan 946

세계 최고의 쇼핑몰

6 CITIES FOR A SHOPAHOLIC

여행의 즐거움에서 쇼핑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쇼핑몰은 단순히 쇼핑을 위한 공간이 아닌 거대한 스케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여행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쇼핑몰을 유혹하는 블라디보스토크, 다낭, 마닐라, 광저우, 오사카, 쿠알라룸푸르의 대표 쇼핑몰을 소개한다.

에디터 <AB-ROAD> 편집부





블라디보스토크 운치 있는 국영 백화점 **금백화점**

스베틀란스카야 거리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최대 백화점. 뛰어난 건축양식만으로도 충분히 값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다. 100년 전 독일 건축가가 목조로 지었다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석조 건물로 바꾼 것. 러시아혁명 이후 지금까지 국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백화점을 찾는 이들 중 집중팔구는 드레스스토어 '추다데이'로 향하기 마련. 매장 안에 100년 된 엘리베이터,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근 1층에 '미셸 베이커리(Michelle Bakery)'가 입점, 쇼핑 중에 잠시 티타임을 갖기 좋다. 미셸 베이커리 옆엔 러시아 황실 도자기 '임페리얼 포슬린'과 그젤 도자기, 마트료시카를 파는 작은 상점이 있다. 기념품 속에서 파는 제품보다 품질이 좋은 편이다.

주소 Svetlanskaya St, 33, Vladivostok, Primorskiy kray **운영시간** 10:00~20:00 **홈페이지** vladgum.ru



다낭 대중을 위한 대형 쇼핑몰 **팍슨 빈퐁 플라자**

팍슨 백화점과 빈퐁 플라자 2개 건물에 자리한 쇼핑몰이다. 롯데마트, 빈컴플라자와 달리 주택가에 있어 다낭 현지인이 많이 애용하는 곳. 베트남 현지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소품부터 유명 해외 명품까지 구매할 수 있어 여행자에게도 인기가 높다. 빈퐁 플라자에는 베트남 국민 마트인 '빅씨(Big C)'뿐만 아니라 영화관과 볼링장, 푸드코트도 있어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저녁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벼 낮 시간에 이용하는 게 좋다. 고풍스러운 팍슨 백화점은 베트남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고가의 수입 제품들도 취급해 선택의 폭이 넓다. 팍슨 빈퐁 플라자 맞은편에는 다낭의 대표 재래시장인 꼰 시장이 있어 다양한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다.

주소 255~257 Hung Vuong, Hai Chau 2, Da Nang **전화** +84 236 3666 588 **운영시간** 09:30~22:00





마닐라

마닐라 쇼핑의 메카 **SM 몰 오브 아시아**

1년 내내 더운 필리핀은 쇼핑물이 발달했다. 대형 쇼핑몰에 백화점, 슈퍼마켓,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 정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밖에 나가지 않고 쇼핑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2006년에 오픈,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주목받은 SM 몰 오브 아시아는 직선 길이가 200m, 매장 수 700개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자칫했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쇼핑하는 것이 좋다. 총 4개의 건물로 이뤄진 SM 몰 오브 아시아는 마닐라 베이 쪽에 엔터테인먼트 몰이 있고, 건너편에 메인 몰이 있다. 메인 몰 남쪽의 '사우스 윙(South Wing)'은 백화점이고, 북쪽의 '노스 윙(North Wing)'은 하이퍼마켓이다. 아이스링크와 아이맥스 영화관은 각각 메인 몰과 엔터테인먼트 몰에 있다.

주소 SM Central Business Park Bay City, 123 MM, Pasay, 1300 Metro Manila 전화 63-2-556-0680
운영시간 11:00~22:00 홈페이지 www.smmallofas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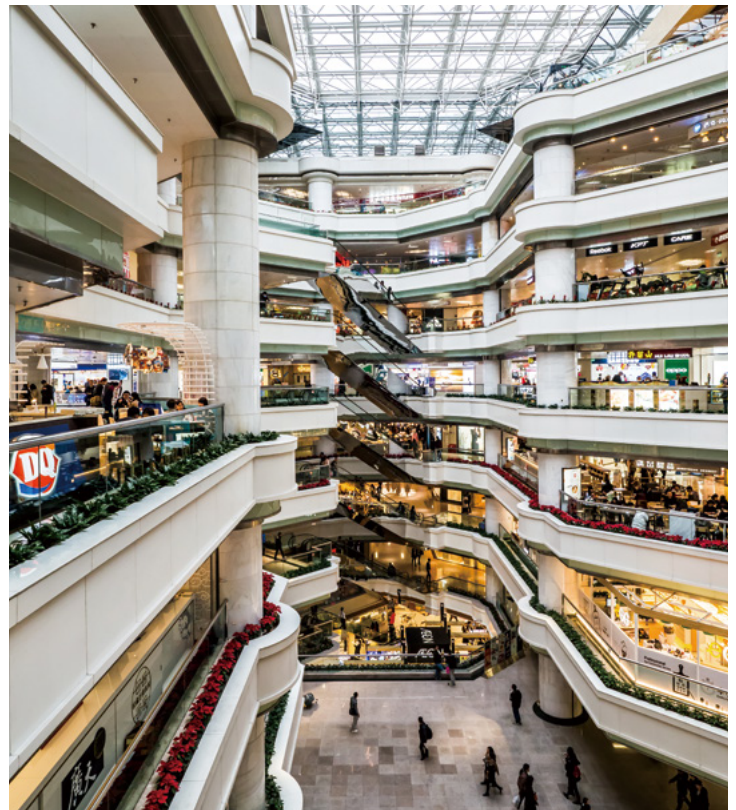


광저우

먹는 즐거움 가득한 쇼핑몰 **티엔허청**

고층 빌딩이 즐비한 티엔허(天河)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 20년 역사의 클래식한 쇼핑몰, 티엔허청(天河城)은 세련미는 떨어지지만 층별 동선이 잘 되어 있어 쇼핑하기 편하다. 천장을 유리로 설계, 자연 채광 효과를 높여 오래 머물러도 답답하지 않다. 거대한 규모의 티엔허청에는 공간이 넓은 만큼 사람들로 북적거려 흥겨운 분위기.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8개 층으로 되어 있으며, 매일 약 30만 명이 이용한다. 1일 최대 방문객은 2004년 기록한 81만 명. 여행자들이 티엔허청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숨겨진 레스토랑이 많기 때문. 미식 도시 광저우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지하 매장에서선 일본의 대형 마트 '이온(AEON)'과 다양한 중국 식재료를 만날 수 있다.

주소 208 Tianhe Rd, TianHe ZhongXin, Tianhe Qu, Guangzhou Shi, Guangdong Sheng
전화 +86-20-8559-2818 운영시간 10:00~22:30 홈페이지 www.teemall.com.cn





 오사카
어른들의 놀이터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2013년 봄에 문을 연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는 짧은 시간 내에 오사카의 새로운 쇼핑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JR 오사카역을 중심으로 양쪽에 쌍둥이 빌딩처럼 자리한 건물. 놀리지 캐피탈, 파나소닉 센터 등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서 준비한 최첨단 기술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보인다. 쇼핑을 복관 6층 식당가에는 '어른들의 놀이터'로 불리는 우메키타 플로어가 있다. 새벽 4시까지 문을 여는 바가 16개나 모여 있는 것. 일본식 사케바 '사와라', 스페인식 바 '라 카줄라(La Cazuela)', 후쿠오카 교자 전문점 '데무징', 오사카 시내에 본점이 있는 '비스트로 프렌치 그루데(Bistro French Gourde)', 제철 해산물 전문 이자카야 '시라스 쿠지라' 등 오사카는 물론 일본 전역에서 인기 있는 맛집을 모두 만날 수 있다.

주소 4-1 Ofukacho, Kita-ku, Osaka 전화 06-6372-6300
운영시간 10:00~23:00(우메키타 플로어 평일 11:00~28:00) 홈페이지 gfo-kr.com/



 쿠알라룸푸르
고품격 쇼핑의 진수 **스타힐 갤러리**

쇼핑 천국이라 불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파빌리온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스타힐 갤러리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 명품 매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최고의 럭셔리 쇼핑몰 중 하나다. 주로 쿠알라룸푸르 상류층이 애용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 건물 중앙에선 수준급의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린 연주자가 라이브로 감미로운 곡을 상시 연주한다. 5층 높이의 우아한 실내에 잘 어울리는 공연이다. 지하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티 살롱이 몰려 있는데, 쇼핑몰 내 푸드코트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맛도 수준급. 미식가라면 한번도 전해볼 만하다.

주소 181, Jalan Bukit Bintang, Bukit Bintang, 55100 Kuala Lumpur, Wilayah Persekutuan Kuala Lumpur
전화 60-3-2782-380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starhillgallery.com



‘고대 수리시설과 도교의 발상지, 그리고 판다의 고향’ 두장옌 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우뚝 서다



중국 두장옌 시 부시장
이광휘

1800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준 도교의 발상지이자 판다의 고향,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수리시설을 갖춘 두장옌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 받고 있다. 연중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두장옌의 숨은 매력과 비전을 두장옌 시 이광휘 부시장에게 물었다.

에디터 최현주 자료협조 TPO

먼저 두장옌(都江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쓰촨성 중부, 청두평원(成都平原) 서북부에 위치한 두장옌 시는 청두 시내에서 4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면적은 1208km²에 달하고, 약 80만 명이 살고 있죠. 두장옌은 청두 시 관광산업에서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두장옌·칭청산(青城山)과 함께 60여 마리의 귀여운 판다가 모여 사는 세계자연유산, ‘쓰촨 판다 자연 서식지’가 있습니다. 두장옌 수리공정(都江堰水利工程)의 관개 기능 덕분에 청두는 ‘천부지국(天府之国)’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어요. 또한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두장옌 시는 중국 국가역사문화고성, 중국 최고 매력도시, 생활환경개선부문 두바이 국제모범사례상을 연이어 수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구한 문화 유산에 매료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두장옌 시는 여행과 휴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두장옌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2000만 여명을 넘어선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두장옌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꼭 기뻐야 할 관광명소를 추천해 주세요.

죽기 전에 꼭 기뻐야 할 곳을 꼽으라면, 세계문화유산인 두장옌·칭청산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두장옌 수리공정은 댐 없이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친환경 수리시설로 22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죠. 이러한 고대 수리시설은 두장옌 수리공정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찬시 평원 전체가 두장옌의 은혜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계 수리문화의 시초’, ‘세계 수리문화 역사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수리공정 관개 면적만 약 8000km²에 달하죠. 칭청산은 중국의 유일한 토착종교인 도교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심오하고 철학적인 도교문화는 1800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영향을 주었죠. 한가지 덧붙이자면 두장옌 시는 판다에게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60여 마리의 판다가 두장옌 내 2개 판다 기지에서 서식하고 있죠. 중국 판다연구센터 두장옌 기지와 판다구(熊貓谷) 모두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두장옌을 방문하나요?

현재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가 뒤를 잇고, 유럽이나 미주 지역 관광객도 있습니다.

2017년에 두장옌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몇 명이며, 관광산업이 두장옌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나요?

2017년 한 해 동안 65만 1000여 명이 두장옌을 방문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48%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에서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장옌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갖는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두장옌은 다채로운 관광자원과 유구한 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장옌 수리공정, 도교 발원지인 청청산은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수리공정을 시작으로 청청산, 판다 서식지까지 관광코스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결합된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장옌은 UNWTO가 선정한 지속가능한 관광 관찰지역으로 선정되었죠. 깨끗한 생태환경은 두장옌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세계 판다 방사센터와 연구보호센터가 있어, 두장옌은 명실상부한 판다의 지상낙원입니다. 올해 두장옌 판다 몇 마리가 독일과 핀란드로 거처를 옮기면서 관광산업 홍보 모델을 넘어, 양국 간 친선외교 사절 역할까지 했습니다.

현재 많은 도시들이 관광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장옌 시의 해외 마케팅 현황을 말씀해주세요.

최근 두장옌 시는 관광 글로벌화, 브랜드화, 차별화 전략을 통해 관광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두시가 시행하고 있는 '72시간 비자 면제 정책'을 유럽, 미주, 일본, 한국, 동남아,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어요. 2018년에는 세계문화유산인 두장옌 수리공정의 브랜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다 연구센터와 방사센터를 결합한 판다문화 '일대일로' 테마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유럽, 미주, 일본, 한국 등 해외에 '두장옌 홍보관'과 여행정보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독일 여행 전문업체인 TUI 등 국제적인 여행업체와 협력해 100여 개의 여행사, 여행 전문가, 언론매체를 초청,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두장옌 관광자원 프로모션, 심포지엄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해외 마케팅 다각화를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장옌의 해외 인지도를 제고해나갈 것입니다.

두장옌 시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는 무엇인가요?

청명방수절(淸明放水節)을 꼽을 있습니다. 청명방수절은 청두평원의 유구한 농경역사

와 민속문화를 재현한 행사로 2006년 5월 20일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00여년 동안 청두가 '천부지국(天府之國)'으로 불린 배경에는 두장옌 수리공정이라는 일등공신이 있어요. 청명방수절은 매년 4월 청명절 기간에 열리는 연례행사로 대나무 다리 쪼개기, 나무 삼각대 무너뜨리기, 댐 개방해 물 내보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TPO조직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향후 TPO에 거는 기대를 말씀해 주세요.

2017년 10월, 두장옌 시 대표단이 제8회 TPO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국제 도시들의 고위급 인사와 만나 대화하고, 국제조직, 글로벌 기업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외 개방 확대에 대한 두장옌 시의 의지를 보여주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죠. TPO는 아태지역 관광산업의 번영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TPO에 가입한 회원 도시 대다수가 '일대일로'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일대일로' 활성화에 중요한 채널 역할을 하고 있죠. TPO가 아태지역 회원도시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도시 교류를 체계화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한국 보령시, TPO 회원 가입

한국 보령시가 TPO의 86번째 도시정부 회원으로 가입했다. 보령시는 한국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 서울 및 인천공항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거리다. 동부의 산악지대와 서부 해안지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서 해양관광도시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보령시의 주요 관광지로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령호, 오서산, 외연열도, 오천항, 죽도, 충청수영성,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길이 3.5km, 폭 100m에 달하는 대천해수욕장이 대표적인 관광지다. 매년 7월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보령머드축제'는 해마다 62만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560만 명이 찾는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축제다. 서해 갯벌에서 채취되는 청정머드는 보령시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보령머드화장품의 원료다. 이 청정머드를 활용하는 보령머드축제는 놀이와 문화, 건강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보령머드축제는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며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그 외에도 줏트랙과 스카이버이크, 패러글라이딩, 요트 및 해양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계절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하다. 2022년에는 해양과 머드를 바탕으로 한 보령 해양머드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며,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도시다.





2018년도 TPO 한국 지역회의 개최

2018년도 한국 지역회의가 15국의 한국 회원도시 실무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에서 3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됐다. 첫날 본회의에서 신연성 TPO 사무총장은 2017년도 TPO 활동 보고와 2018년도 TPO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신연성 사무총장은 신년 인사 이동으로 새로이 TPO 업무를 담당하게 된 다수의 회원도시 실무자에게 TPO의 개요와 기구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소개했으며, TPO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회의를 마친 후 전주시 글로벌관광마케팅팀장 조영호 관광학 박사의 특별 강연이 열렸다. 조영호 박사는 TPO 창립 초창기부터 TPO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살려 'TPO를 통한 관광공류 및 관광마케팅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튿날 참가자들은 '부산 관광자원 시찰'을 주제로 부산 시티투어버스 블루라인에 탑승, 시티투어버스 운영방법과 코스 등을 견학했다. 한편 지역회의는 회원 간의 교류 강화와 TPO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어권별로 개최되고 있다.



TPO문화센터 및 광저우 홍보관 설립

TPO사무국은 올해 3월 TPO를 알리고 회원도시들의 문화와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TPO 문화센터를 그리고 중국 광저우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광저우 홍보관을 각각 부산글로벌빌리지 내에 개설했다. TPO사무국은 한국에서 광저우시의 마케팅센터를 대행하고 있다. 부산 글로벌빌리지는 2009년 7월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 통학형 영어학습공간으로 개원했다. 유아에서 일반인까지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생 및 학부모를 포함해 연간 4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 홍보관에는 회원도시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방문객들을 위해 TPO 및 회원도시들의 소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는 TPO 문화센터 및 광저우 홍보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진행한다. 이런 공간을 통해 TPO와 광저우는 많은 학생들에게 관련 역사, 문화 및 관광 자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잠재적 관광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김해, 부산, 통영, 중국 광둥성 지역 팸투어단 초청

한국 남부에 위치한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통영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광둥성 지역 대표 여행사와 언론사 등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에선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의 한국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회원도시인 김해, 부산, 통영을 차례로 돌아봤다. 이 도시들과 연계된 문화예술 관광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자유여행(FIT)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광둥성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관광객 송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

팸투어에 참가한 광저우 국제여행사를 비롯해 광동녹색국제여행사, 광저우교역회국제여행사, 광동청년여행사 대표단과 남방일보 기자, 광저우 여행사협회 사무총장 등 8명은 김해와 부산, 통영의 문화예술 시설과 신규 관광지, 통영국제음악제 등을 시찰하며 새로운 여행상품을 구상했다. 남방일보 기자는 김해와 부산, 통영의 관광산업과 시설에 대해 질문하며 광둥성 지역에 3개 도시를 알리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한 중국측 참가자는 "사드 사태 이후 침체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점차 풀려가고 있는 양국간의 분위기에 발맞춰 점차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알라룸푸르 국제 도서 박람회 2018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4월 27일~5월 6일
장소 푸트라 월드 트레이드 센터(PWTC)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말레이시아 도서 위원회(NBCM), 6개의 도서 관련 협회와 함께 쿠알라룸푸르 국제 도서 박람회(KLIBF)를 개최한다. 쿠알라룸푸르 국제 도서 박람회는 국제 출판업계의 대표적 연례행사로 소위 '책벌레'들이 다양한 도서를 구하기에 안성맞춤인 곳. 말레이시아의 많은 출판사들이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축제의 열기는 매년 뜨겁다. 10일간 진행되는 행사 기간 동안 새로운 신간 발표 및 세미나 등 메인 스테이지와 'R&B존'에서 여러 흥미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웹사이트(www.klibf.my)를 방문하면 세부적인 행사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다.



2018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한국 | 4월 27일~5월 13일
장소 고양시 호수공원

고양국제꽃박람회에는 30개국 320개 팀이 참가해 화려한 꽃의 세계를 펼친다.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트남, 중국 등 15개국 국가관과 국립원에 특작과학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국내 화훼관련 기관 및 국내 화훼 우수 업체가 세계 각국의 대표 꽃들과 화훼신상품을 전시한다. 세계 화훼작가 초청전 '플라워 모먼트 2018'에는 올해 새로운 7명의 세계 최정상급 화훼작가가 참여해 화훼공간 장식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인다.



겐페이 전쟁 해상 퍼레이드

시모노세키, 일본 | 5월 3일
장소 간몬 해협 연안 일대

겐페이 전쟁 해상 퍼레이드는 1185년 간몬 해협에서 펼쳐졌던 역사적인 전투를 모티브로 한 축제다. 안토쿠(安德), 천황과 겐지(源氏), 헤이(平氏), 관녀(官女)의 민족의상을 입은 시민들이 80여 척의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 퍼레이드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웅장한 무사 행렬(武士行列), 겐페이 전쟁 재현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하카타 돈타쿠 미나토 마츠리

후쿠오카, 일본 | 5월 3일~5월 4일
장소 후쿠오카 시내

하카타 돈타쿠 미나토 마츠리는 매년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열리는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항구 축제다. 다양한 공연과 함께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는 시민잔치의 한마당이 벌어진다.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시내의 간선도로인 메이지 거리를 퍼레이드하는 화려한 '돈타쿠 부대'다. 시내에 30여 개 무대가 설치되어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리고, 꽃과 조명으로 멋을 낸 플라워 카 퍼레이드도 펼쳐진다.

'소롱코이 잠바탄 탐파롤리' 사바 페스트 2018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 5월 4일~5월 6일
장소 JKKK 사바 종합운동장 오디토리움

'소롱코이 잠바탄 탐파롤리' 사바 페스트는 말레이시아 국가적 행사인 추수감사제의 사전 이벤트 격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말레이시아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축제로 댄스, 음악, 패션, 음식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소롱코이'는 영국인민지 시절 영국인 건축가가 지은 뒤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탐파롤리' 다리의 유래에서 비롯된 사바시의 대표적인 행사다. 입장료는 50링깃이다.



울산 태화강 봄꽃 대향연

울산, 한국 | 5월 10일~5월 13일
장소 태화강대공원

'꽃들의 춤, 대숲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울산 태화강 봄꽃 대향연은 수변공원에 만개한 꽃양귀비, 작약, 수레국화, 안개초 등 10여 종 6000만 송이 봄꽃을 선보인다. 봄꽃 단지를 주변으로 태화강변의 십리대숲이 함께 어우러진다. 5월 10일 소망 꽃등 점등 퍼포먼스, 개막 축하 콘서트를 시작으로 시민이 참여한 봄꽃 패션쇼와 건강레시피 봄꽃 쿠킹 토크쇼, 태화강 대나무 공예체험, 소망 꽃등 만들기 체험, 야간 미디어라이팅 쇼 등 행사가 진행된다.



2018 상하이 세계관광박람회(SWTF)

상하이, 중국 | 5월 24일~5월 27일
장소 상하이무역센터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15회 상하이 세계관광박람회는 세계 여행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행사다. 1만 m² 규모의 상하이무역센터 박람회장에 3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며, 업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람객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정보, 현장체험, 양질의 관광상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업계 전문가와 여행애호가 모두에게 놓치기 아까운 최고의 박람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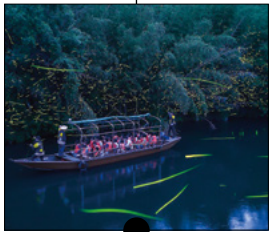


2018 중국 국제물류전시회

정저우, 중국 | 6월 1일~6월 3일

장소 정저우국제회의센터

정저우 국제물류전시회(ZZILE)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중원경제구역전략을 발전시키고 중국 중서부 개발을 위한 중요한 행사다. 중국의 우수한 내륙 물류환경과 산업자원을 소개하고 새로운 물류 기술과 장비, 서비스를 홍보하는 자리다. 여기에 해외 물류 관련 기업간의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정부 및 산단과의 협업을 진행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물류전시회가 될 것이다.



반딧불이 마츠리

시모노세키, 일본 |

6월 6일~6월 24일(6월 9일 제외)

장소 시모노세키시 도요타초 고야강 일대

시모노세키시 도요타초는 일본의 대표적인 반딧불이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반딧불이 계절인 초여름이 되면 반딧불이 마츠리가 열린다. 또한 2017년 일본 최초로 반딧불이 배를 운행, '호타루부네'라는 배를 타고 반딧불을 바라보면서 고야강을 천천히 내려가는 뱃놀이가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몇 만개의 반딧불이 강에 비치는 환상적인 빛의 쇼가 펼쳐진다.



2018 두장엔·투이(TUI)

관광발전세계총회·국제 물(水)문화관광 테마행사

두장엔, 중국 | 6월 11일~6월 14일

장소 쓰촨성 두장엔

두장엔 시와 세계 500대 여행기업인 독일의 '투이'가 '2018 도강엔·투이(TUI) 관광발전세계총회·국제 물(水)문화관광 테마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00여 개 주요 여행사, 여행전문가 및 미디어를 초청해 팸투어와 관광루트개발을 진행한다. 두장엔은 기원전 건설된 수리시설로, 예부터 민장강의 범람으로 일어나는 홍수를 막고 청두 사람들이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농수를 공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도강엔 시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려 국제적 지명도를 높이고, 글로벌 생태관광 대표도시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2018 타이난 국제용선경주

타이난, 타이완 | 6월 14일~6월 18일

장소 타이난시 안핑구 안핑 운하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절이면 타이난에서 가장 중요한 민속체육행사인 '타이난 국제용선경주'가 열린다. 용모양을 한 배를 타고 액운을 물리치는 관습에서 유래한 축제다. 올해는 타이난시 안핑운하에서 용선경주가 개최된다. 타이난 국제용선경주는 대만 전역에서도 가장 특색 있는 행사로, 행사 시작 전 전통에 따라 '용 눈 그리기' 행사를 실시하고 개막식 전 강에 제사를 지내며 경주의 안전을 빈다.



2018 광저우 예술교역박람회(GATF)

광저우, 중국 | 6월 22일~6월 25일

장소 중국수출입상품교역컨벤션센터(파저우관)

광저우 예술교역박람회는 동남아 최대의 예술교역 현장이다. '예술 소비'에 초점을 맞춘 이번 박람회는 중국 예술시장에 열정을 불어 넣고 예술계 교역에 혼풍을 불어오게 할 것이다. 전 세계 다양한 갤러리들이 참가해 소비형 예술작품과 공예미술, 예술생활용품 등을 선보이며 예술애호가, 거래상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탐다오 산악 레이스

하노이, 베트남 | 6월 23일~6월 24일

장소 탐다오, 빈푹(하노이에서 70km 거리에 위치)

탐다오 산악지대는 오랜 기간 북부 베트남의 녹색 오아시스로 여겨져 온 곳. 해발 900m에 위치해 있으며 구름 위로 뻗은 세 개의 봉우리를 지닌 인기 관광지다. 2018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레이스 코스는 초보자에서 베테랑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을 위해 10km, 21km, 42km, 70km 거리의 코스가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탐다오 국립공원 안의 숲과 등산로를 따라 걷고, 높은 봉우리에 올라 절경을 바라보며 자연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날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 6월 27일

장소 스포르티브나야 해양공원

청년의 날은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휴일 중 하나다. 블라디보스토크 도시 전역에서도 다양한 축제와 공연, 요가 클래스, e스포츠 대회, 댄스 클래스, 자전거 경주 등이 진행된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용선경주도 빼놓을 수 없다. 저녁이면 블라디보스토크 인기 락밴드의 콘서트와 함께 하늘로 솟아오르는 LED 풍선이 화려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하카다 기온야마카사 축제

후쿠오카, 일본 | 7월 1일~7월 15일

장소 후쿠오카시 하카다구

하카다 기온야마카사 축제는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구시다 신사의 행사로 2016년에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 매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높이가 10m 이상되는 가마인 '가자리 야마카사'가 시내 14곳에서 전시된다. 하이라이트는 7월 15일 오전 4시 59분. 새벽에 모인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북의 신호 소리와 함께 수레를 짊어진 남자들이 하카타의 거리를 전력으로 질주한다.



칸몬 해협 유람 크루즈

시모노세키, 일본 | 7월 1일~8월 26일 중

일요일·공휴일

장소 가라토 잔교

시모노세키에서는 칸몬 해협을 유람할 수 있는 무료 크루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운항일 전날인 토요일에 시모노세키 시내에서 숙박한 고객은 9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탑승할 수 있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칸몬 해협 바람을 느끼며 관문교(関門橋)와 간류섬(嚴島島), 해협 양쪽 마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2018 루동(엔타이) 아동교육산업박람회

엔타이, 중국 | 7월 5일~7월 8일

장소 엔타이엑스포센터(YANTAI Expo Center)

산동성 엔타이에서 열리는 아동교육산업박람회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 가정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기별 육아에 대한 강연 등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 20여 개 국가와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200여 개 이상의 육아전문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8 울산고래축제

울산남구, 한국 | 7월 5일~7월 8일

장소 울산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울산 장생포에서 개최되는 2018 울산고래축제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퍼레이드, 체험프로그램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새롭게 모노레일, 워터프런트 등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고래 옛마을 방문을 통해 장생포의 지난 역사를 가까이 체험할 수 있다. 장생포차 등 페스티벌 푸드코너를 만들어 맛있는 먹거리를 판매한다. 또한 세계 청년 1만 명이 모여 2박 3일 동안 드림캠프를 경험한다.



인도네시아 요트쇼 2018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7월 7일~7월 8일

장소 바타비아 순다 켈라파

자카르타에서 개최하는 인도네시아 요트쇼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백만장자들을 위해 최신 요트와 선박, 럭셔리 아이템을 선보이는 행사다. 약 120개의 회사가 자사 제품을 소개할 것이고 6000명 넘게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신흥 요트 시장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H 마린(아지무트 요트)', '디미트리 마린(페레티 요트 유통사)', '린세스 요트', '와이더 요트', '겔프 크래프트' 등 굵직한 브랜드를 유지했다.



제21회 보령머드축제

보령, 한국 | 7월 13일~7월 22일

장소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제21회 보령머드축제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7월 13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에는 머드체험존 에어바운스, 머드몹신, 머드마사지, 갯벌마라톤, 해양스포츠, 요트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K-POP, EDM, 가수 싸이 공연 등 59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기온사아 축제

가고시마, 일본 | 7월 14일~7월 15일

장소 가고시마시 중앙공원에서 덴몬칸 거리까지

에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오기온사아 축제는 역병퇴치와 사업번창을 기원하는 전통 축제다. 가장 큰 볼거리는 중앙공원에서 덴몬칸 거리까지 약 2km를 3000여 명 시민들이 행진하는 고진코우(ご神幸).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에스루우면서도 열기가 넘치는 행렬이 이루어진다.



재즈 구봉 브로모 2018

수라바야, 인도네시아 | 7월 27일~7월 29일

장소 수라바야 브로모산

재즈 구봉 브로모 2018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위치한 브로모산에서 열리는 재즈 축제로 캠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축제다. 브로모산의 아름다운 배경으로 3일간 펼쳐지는 재즈 축제에 많은 여행객이 참가한다.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하늘과 자연을 배경으로 한 무대 위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에는 인도네시아 뮤지션 엔다 & 레사(Endah N Rhesa), 노나리아(Nonaria), 보니타 & 허즈번드(Bonita & Husband) 등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다.

TPO Members

86 city members, 45 industry members

CITY MEMBERS

CHINA

Chengdu
Qingyuan
Dalian
Foshan
Guangzhou
Hangzhou
Qingdao
Sanya
Shanghai
Shaoguan
Shenyang
Suzhou
Tianjin
Urumqi

Weihai
Yantai
Zhangjiajie
Zhaoqing
Zhengzhou
Liupanshui
Lianyungang
Dujiangyan

CHINESE TAIPEI

Kaohsiung
Taichung
Tainan

THAILAND

Bangkok

VIETNAM

Danang
Hai Phong
Hanoi
Ho Chi Minh

MALAYSIA

Ipoh
Kota Bha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Melaka
Penang
Taiping

KOREA

Andong
Boryeong
Busan
Busan Haeundae-gu
Busan Jung-gu
Buyeo-gun
Changwon
Chuncheon
Daegu
Daegu Jung-gu
Daejeon
Donghae
Gangneung
Geoje
Gimhae
Goyang
Gunsan

Gwangju
Gyeongju
Hadong-gun
Iksan
Incheon
Incheon Gangwha-gun
Jeonju
Namhae-gun
Pohang
Sokcho
Tongyeong
Ulsan
Ulsan Dong-gu
Ulsan Nam-gu
Yeongju
Jeollabuk-do
Ulju-gun

RUSSIA

Vladivostok
Irkutsk

JAPAN

Fukuoka
Kagoshima
Kitakyushu
Kumamoto
Miyazaki
Osaka
Shimonoseki
Takeo

PHILIPPINES

Manila

INDONESIA

Jakarta
Surabaya
Yogyakarta
Bitung

INDUSTRY MEMBERS

CHINA

Guangzhou Garden Hotel
Guangzhou Star Cruises Co., Ltd.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
Shandong Channe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China Travel International (Xinjiang) Ltd.
China Comfort X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Dalian Gul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ITS Guangdong
China Travel International Sanya Co., Ltd.
Hainan Gaoli Holiday Travel Service Co., Ltd.

JAPAN

Kagoshim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JTB Corp. Fukuoka Office

KOREA

BEXCO
Busan Tourism Association
Arum Travel Service Co., Ltd.
Cheongsong Travel Service Co., Ltd.
Road ABC Media Co., Ltd.
TourJapan Co., Ltd.
Intravel Ltd.
Haeundae Centum Hotel
Daegu Tourism Association
Lee Convention
Busan Tourism High Schoo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Solar Travel Agency
BS FunTour
Benikea Jeonju Hansung Tourist Hotel
Sky Tour
JB Tour
Panworld Dream
Tour Fun Co., Ltd.
Wolseong E&C
Tongyeong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Stanford Hotel & Resort
Dongback Tour
Dongwon Royal Country Club & Resort
Ulsan College

MALAYSIA

Taiping Tourist Association

MONGOLIA

Ancient Nomads Tour Agency

RUSSIA

Gavan Tour-Center Co. Ltd

U.S.A

MCM Group Holdings Ltd.

VIETNAM

Haiphong Vanhoa One Member Limited Corporation
Haiphong Vocational College of Tourism

INDIA

Abroad Consultancy India Pvt. Ltd.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PO Secretariat, 8th Floor of Kwang-Eun Building, No.480 Suyeong-ro, Suyeong-gu, Busan 48314,

TEL. +82-51-502-2984~7 FAX. +82-51-502-1968

E-mail. secretariat @ aptpo.org

Web Site. [http: www.aptpo.org](http://www.aptpo.org)